

MIRAL

밀알

2015. 11+12

Vol. 50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이웃들의 마음에 파스한 썩을 틈웁니다



CONTENTS



Cover story

중후한 신사가 서 있습니다. 사뭇 듬직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은 작가가 아버지를 그린 '최은석'이라는 작품입니다. 인영이는 밀알복지재단과 KB국민카드가 함께하는 발달장애청소년 미술지원사업 '봄(seeing&spring)'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림 최인영 - 최은석 (Choi Eun Suk)
Marker on paper, 65×48cm, 2015



22



18



10

34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20년 이상 국내복지사업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국내 48개 산하시설과 5개 지부를 통해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해외 21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정형석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정형석 **[명예이사]** 노상현, 박완철, 장형욱, 정현만, 조병성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이유진, 이종면, 정태중, 정형석, 최병우 **[국립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명환, 박정열, 손만석, 이만철, 정형석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중인 위원 김귀자, 류재룡, 박상호 이정우, 정형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이기민, 전명희, 정형석, 한정국 **[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박상범, 서경석, 정현만, 정형석 **[전문위원]** 김두현, 김미옥, 김의동, 김형식, 이천화, 전승만 **[지문위원]** 김준수, 배윤규, 이성현, 조윤경, 홍정혜

밀알 2015. 11+12 Vol. 50

제호 밀알·Miral (통권 50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주소 [우]06349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수서동]
TEL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인쇄 리드릭

www.miral.org
facebook.com/miral4664
miralorg.blog.me
@miral1993
@miralwelfarefoundation

밀알복지재단 소식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중증 장애인생산품시설 리드릭(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04	밀알칼럼	밀알정신을 소개합니다
06	밀알포커스	법인사무처 주요 소식
08	한 알의 밀알	사진으로 전하는 메세지
10	스타인터뷰	진태현·박시은 부부 홍보대사 인터뷰
14	이슈 in 시리아	아랍의 봄 그리고 시리아의 눈물
17	MIE (Magazine In Education)	시리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18	밀알 in 시리아	시리아인들의 삶에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22	특별한 지도 그리기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광화문역 주변
28	함께하는 마음	한부모 가정의 장애아로 산다는 것
31	나눔 후기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32	인터뷰 36.5°C	특별할 것 없는 자연스러움 - 탁효운 회원
34	희망파트너	기아자동차, 에티오피아에 그린라이트를 쏘아 올린다
37	회원안내 I	해외빈곤아동 생일 캠페인 결과보고
38	현장이야기	밀알그린보호작업장 방문기
42	우리를 이야기	공모전 우수상 - 여기 장애인 있다
44	밀알뉴스	국내외 지부 및 산하시설소식
48	회원안내 II	2015 하반기 국내·해외 아동 선물보내기 캠페인 기부금영수증 온라인으로 발급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51	결산보고	



밀알정신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밀알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즉 밀알정신은 밀알의 영문 표기인 MIRAL의 첫 글자를 중심으로 Modesty(겸손), Integrity(정직), Respect(존중), Advocacy(옹호), Love(사랑) 등 다섯 가지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 정신인 Respect(존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존중사상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입니다. 인간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이 최고의 가치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신 다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야말로 인간존엄의 극치입니다. 나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등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왕의 호칭'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봉건주의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왕 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범죄이후 영원한 형벌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천국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Respect 존중

Modesty 겸손, Integrity 정직, Respect 존중, Advocacy 옹호, Love 사랑

밀알은 이러한 인간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먼저 대상자를 존중합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주의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선별주의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선별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선별주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입니다. 즉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여성, 다문화 가족 등입니다. 존중과 존경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밀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약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들의 욕구에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종, 장애, 빈곤, 학력, 성별, 나이, 종교, 고향 등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외적인 조건으로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의 중요한 윤리 가운데 하나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밀알은 함께 일하는 직원, 후원자, 봉사자 등 동역자를 존중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을 섬기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의 선한 뜻을 항상 생각하며 조건 없이 돕기를 원하는 봉사자를 배려

해야 합니다. 상급자라고 하급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는 후배를 존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알은 자기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기를 존중하여 자기계발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돕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가치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밀알정신에서의 존중은 성경에 기록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간존중과 사랑에 입각하여 대상자와 동역자를 존중하며 자기발전을 위한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밀알은 처음 창립초기에 가졌던 밀알정신을 계승하며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경석



밀알, 궁금한 이야기 '김해영 본부장 편' 진행

지난 10월 16일(월), 밀알복지재단의 해외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밀알, 궁금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김해영 희망사업본부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김해영 본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국제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밀알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밀알복지재단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5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소중함과 나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나눔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우 진태현, 홍보대사로 위촉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10월 14일(목), 배우 진태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진태현 홍보대사는 "언제부터가 어두운 소식들이 언론에 가득해서 밝은 소식, 좋은 소식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홍보대사 제안에 흔쾌히 수락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박시는 홍보대사와 함께 기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라이팅칠드런, 하이서울페스티벌 참여

밀알복지재단은 10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진행된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전기 없이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국가에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라이팅 칠드런' 에너지 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라이팅 칠드런 프로그램은 참여한 시민들이 일상을 통해 나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제2차 신입직원 교육 실시

지난 9월 19일(토), 우리재단 2015년 제2차 신입직원 교육이 밀알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법인사무처와 20개의 산하기관에서 총 52명의 신입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재단의 투명성과 순수성을 강조한 손봉호 이사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단의 역사와 밀알인이 갖추어야 할 밀알정신에 대한 정형석 상임대표의 강의가 이어졌으며, 이기민 사무처장의 재단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신입직원 교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착한 바자회' 열려

개그맨 심현섭, 박준형 등으로 구성된 '세수회' 봉사단이 9월 16일(수), 대치동 포스코사거리에서 밀알복지재단, 대치베스트상인회와 함께 빈곤 장애아동 가정을 돕기 위한 '착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약 20여명의 세수회 봉사단과 대치베스트상인회가 참여해 의류, 신발,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빈곤장애아동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수회는 앞으로도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9월 11일(금), 밀알복지재단과 산하 38개의 시설이 경북대학교(총장 전지용)와 함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밀알복지재단은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실습 및 취업 지원에 협력하고, 경북대학교는 밀알복지재단에 기술자문, 경영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필모 홍보대사, '2015 서울사회복지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이필모씨가 지난 수년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해 펼친 나눔활동을 인정받아 9월 9일(수) 오후 2시, 우리 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2015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필모 홍보대사는 2011년 우리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양**

“
지금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건 당신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





사랑은 나눌수록 채워진다

“언제부터가 세상이 어두운 소식들로 가득해서 밝은 소식, 좋은 소식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됐어요.” 앞서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시은씨에 이어, 배우 진태현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축을 밝힌 진태현 - 박시은 부부는 앞으로 밀알복지재단의 부부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나눔의 기쁨을 알리는 일에 앞장설 예정인데요. 지난 10월 14일, 강남대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에서 진태현 - 박시은 부부를 만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진: 제스니눔 김준수 (주스튜디오), 윤리이눔팀 최현아
글: 홍보팀 오슬길

밀알 부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함께 활동하게 된 소감이 궁금해요.

태현 이렇게 좋은 일을 시은씨와 함께 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밀알복지재단 부부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의 기쁨과 가치를 알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밀알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한 보육원을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태현 가서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봉사라고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뭘 꿈꾸고 있는지 알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왔어요. 72명의 새로운 조카가 생겼죠. 봉사라기 보단, 사랑을 나누러 다녀온 것 같아요.

밀알 아이들과 대화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거네요.

태현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무작정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오자는 생각으로 갔죠. 소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사춘기가 온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해주고,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으로 계획 없이 갔어요. 그 곳 원장님이 놀라셨죠. 정말 돌이 울 줄 몰랐다면서. (웃음)

밀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신 특별한 이유나 마음을 움직인 계기가 있나요?

태현 제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제 어릴 때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게 많았어요. 제가 어린 아이일 때, 청소년이었을 때, 그 나이에 해야 할 것들 하지 못한 것들, 그냥 지나친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저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물론 저도 아직 바로섰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이 저만큼은 바로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밀알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은 아이들이 미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이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채 자란다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 나눔은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



“ 내가 채워지는게 나눔인 것
같아요.
”

되고 사회에 나왔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원래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는데, 제주도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청소년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는 것을 곧 앞둔 아이들이잖아요. 더 시급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여요.

밀알 오늘 진태현-박시은 부부가 촬영하는 캠페인도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은 밀알복지재단의 국내아동결연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장애나 질병, 가난으로 인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과 후원자가 결연을 맺는 캠페인인데요.

태현 후원이 필요한 아이들 대부분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아픈 아이들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요. 이런 아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전해진다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은 후원자가 되면 내가 결연한 아동에 대한 사진과 정보, 매 년 아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성장발달보고

서를 받아볼 수 있구요.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며,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결연을 맺은 아이를 직접 만나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밀알복지재단의 국내아동결연 캠페인을 통해 결연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밀알 나눔을 실천하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시은 삶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태현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진거죠. 정확해졌어요.

시은 맞아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라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사회에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들게 됐어요.

태현 인연을 맺은 아이 중 하나가, 선생님께서 저를 사랑 했대요. '우리 삼촌이에요'라고요. 저를 딱 한번 봤는데도 그 아이는 저를 가족처럼 생각 해 준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동안 함부로 살진 않았지만요, 그 아이들이 저희를 생각 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더라고요.

시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아이들이 바르게 살 테니까요.

밀알 진태현, 박시은씨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태현 나누면 내가 채워지는게 나눔인 것 같아요. 나누지 않고 내 것만 챙겼을 때는 욕심만 채워졌어요. 그런데 나누니 사랑이 채워지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것이 필요한 게 없어요. 나눠야 내 사랑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제주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어쨌든 신혼여행이었으니 아이들을 만난 후 제주도를 즐기기 위해 시은씨랑 해안 도로를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도 돌아도 자꾸 보육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가서 고3 아이들을 만났어요. 참으로 감사한 건, 그 만남 이후 원래는 대학 진학 생각이 없던 아이들이 수시를 봤다는 거예요. 특히 한 아이는 꿈이 없었는데, 가수가 되고 싶다며 실용음악과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시은 우리가 그 아이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졌을 때 아이가 변하는 걸 보니, 우리의 작은 관심만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 나눔은 관심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밀알**



진태현-박시은 부부 홍보대사의 아동결연캠페인 촬영 현장



아랍의 봄 그리고 시리아의 눈물

글 홍보팀 권태윤 사진 밀알복지재단

나가는 순간 총을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국경선을 넘어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걸고 도착한 레바논. 이곳에서 지낼 곳이라고는 텐트뿐이었고,
그나마 텐트에서 살기 위해서는 1년에 600달러의 돈도 내야했다.
식량팩을 받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차디 찬비를 맞으며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원래부터 난민으로 태어난 것 같이 느껴진다.
내 과거, 고향, 가족, 미래, 희망... 인간다운 신분.
모든 것이 사라졌다.

< 긴급구조 중 만난 시리아 난민과의 인터뷰 중에서 >

아랍의 봄

집권세력의 부패와 빈부 격차의 심화 속에 청년 실업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대로 안된다'며 민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 시위는 자스민 혁명(23년간 독재한 튀니지 벤 알리 정권 반대 시위)과 코사리 혁명(30년간 이집트를 지배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반대 시위)로 이어져 결국 정권 교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혁명의 여파는 알제리, 이란,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시리아 등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시리아 내전의 시작

2011년 시리아의 남부 도시 '데라(Derra)'에서 15명의 학생이 모여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 구호를 벽에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학생들을 석방하고, 민주주의를 시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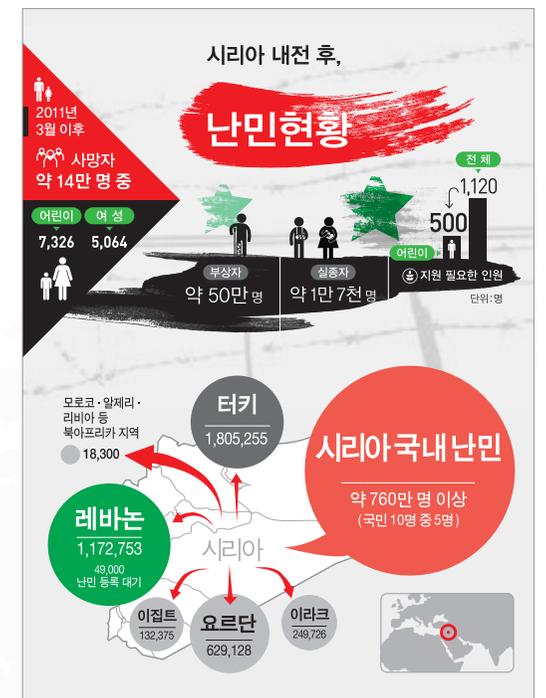
사실 시민들은 시가행진 등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결국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군은 장례식장에 발포해 더 많은 사상자를 냈고, 시위진압부대를 동원해 주거지역을 습격함으로써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내버렸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자 '데라'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반정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리아 내전 공식 인정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정부군에서도 탈영이 빈번해졌고, 내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더욱 강경하게 진압하는 우를 범하고, 결국 2012년 6월 국제사회에 시리아

가 내전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리아 내전은 주변국의 대리전으로 전장의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수니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 세력인 반정부군을 지원하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시아파 세력인 정부군을 각각 지원하며 내전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충돌하면서 난민이 주변국으로 유입되었고 이슬람 국가(IS)의 개입 등 분쟁은 계속되었다. 또한, 이스라엘, 터키 등으로의 폭격과 보복 공격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시리아 반정부군에 지원을 검토했지만, 반정부군 세력이 알카에다 무장세력이 유입되고 반군 사이에서도 분열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지원도 불가능했다. 시리아 반정부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납치하고,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를 사살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부에서 개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시리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중동아시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 시리아. 다양한 음식과 멋스러운 풍경, 역사적인 건축물이 가득한 나라. 시리아를 다녀온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라고 말한다. 그런 시리아가 5년이 넘도록 내전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내전으로만 알려진 시리아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자.

정리 홍보팀 권태윤

1. 성경의 대홍수 이후 노아의 장자 셈은 오늘 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Damascus)**에 정착하였다. 그 지역의 번영과 더불어 그의 이름이 이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Bilad al-Sham)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

2. 시리아는 국토의 60%가 사막이지만 지중해 연안에 **비옥한 평야**를 가지고 있고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있는 농업국이다.

3. 현재 시리아는 **공식적인 국교는 없다**. 1973년까지 시리아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이었으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이슬람교가 약 90%(수니파 74%, 시아파·알라위파·두르제파 등 15%)이며, 기독교인이 10%, 유대인도 있다.

4. 종족 구성은 **아랍인(90.3%), 쿠르드족·아르메니아인·기타(9.7%)**로 구성되어 있다.

5. 공식언어는 **아랍어**이며 아랍어*, 쿠르드어, 아르메니아어, 체르케스어, 그리고 프랑스어**가 쓰이고 있다.

*고대시리아어가 발전하여 유태인의 공용어로 쓰였던 언어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로 알려져 있다.
**1920년부터 1946년까지 프랑스 지배하에 있었다.

6. 시리아의 면적은 **한반도*보다 약간 작은 18만5,180km²**이다. *한반도의 크기는 22만km²이며, 대한민국은 99,720km²이다.

7. 시리아는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라크 등 **5개 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8. 성경 속 **바울의 회심**이 일어난 곳이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Damascus)**이다.

9. 시리아는 내전 발생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였다. 시리아는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북한과 수교가 맺어져 있으며, 대한민국과는 수교가 맺어지지 않아 대사관이 없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자 발급이 어렵다.

10. 오랜 역사와 문화적 축적으로써 중동의 지식인 사회를 이끌었던 시리아는 한때 중동을 품어줬던 범아랍주의 바트당을 만들어 냈다. 1947년에 창당한 **바트당은 범아랍주의 -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공산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를 반대했다. 시리아의 바트당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었으며, 집권에 성공한 것은 시리아와 이라크였다.

*이슬람 교리를 정치·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교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이슬람화운동을 말한다. **인양**

알면 재미난, 몰라도 되는 이야기

● 십자군 성으로 유명한 **'크라크 데 슈발리에'**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리퓨타'**의 모델이기도 하다.

●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 폴 앤카(가수), 머레이 아브라함(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배우), 제리 사인펠트(코메디언), 윈트워스 밀러(석호필로 알려진 미국 배우), 플라 압둘(아메리칸 아이돌 심사위원), 카를로스 메렘(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새년 엘리자베스(모델), 아도니스(고은 시인과 늘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시인), 니자르 카바니(시인) 등은 **시리아계 사람들**이다.



시리아 난민

오랜 내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내전과 IS의 위협으로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고 향을 버리고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의 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리자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나라가 많아

졌고, 결국 난민들은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이 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독일이 인도적 해결을 촉구하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자국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시리아 국내 난민의 수는 760만 명이며, 국외로 탈출한 난민이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 인구 1,160만 명의 절반 이상이 인도주의 구호가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어느 세력의 편에 서게 되어도 다른 세력의 적이 되고, 또 세력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내전의 한가운데 있기에 늘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되고 있다.** **인양**

참고자료 시리아 내전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시리아인들의 삶에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글 국제협력팀 박동석 사진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실의에 빠져 고통을 겪는 시리아 인들을 위해 레바논 자홀레(Zahle) 지역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난민 대상 재활복지,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레바논 내 거주 시리아 난민 수는 1,078,338명¹⁾이나, 등록 대기 및 미등록 난민을 포함하면 1,435,840명²⁾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재단의 사업설정지역인 베카(Bekka) 주에는 총 난민의 35%인 373,429명³⁾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 사업지역인 자홀레(Zahle)에는 베카지역 난민의 약 45%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gistered Syrian Refugees*

1,078,338

© Last Updated 30 Sep 2015. Source - UNHCR

*As of 6 May 2015, UNHCR Lebanon has temporarily suspended new registration as per Government of Lebanon's instructions. Accordingly, individuals awaiting to be registered are no longer in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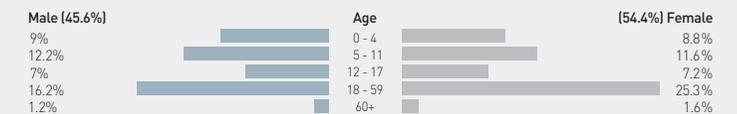
참고 1 UNHCR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통계

Total Persons of Concern

373,429

© Last Updated 30 Sep 2015. Source - UNHCR

Demography



참고 2 UNHCR 베카지역 시리아 난민 통계

1) 2015.09.30. UNHCR 등록난민 기준. 2015년 5월 6일부로 난민 수 선정 시 대기난민은 포함시키지 않음.
2) 2015.09.30. UNHCR 통계기준.
3) 2015.09.30. UNHCR 등록난민 기준. 대기난민 수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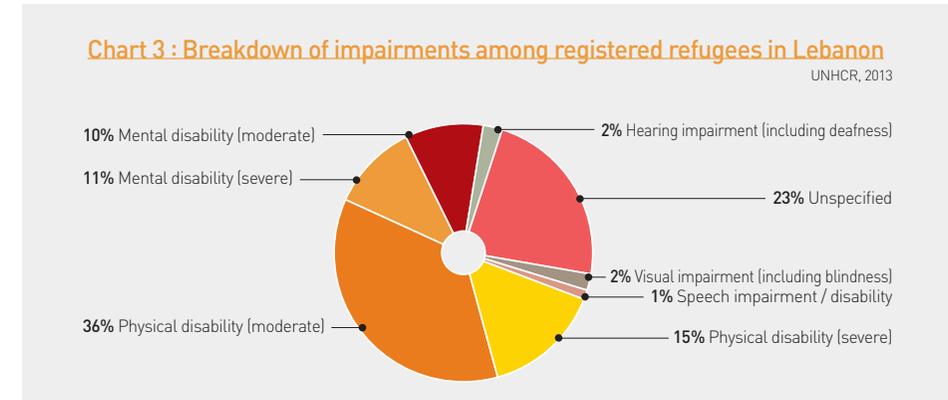
2015년 유엔난민기구(UNHCR)는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약 134억 달러로 산정했으나, 201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94억 달러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다.⁴⁾ 이는 시리아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UN 회원국 분담금 및 모금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재단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결과, UNHCR 월 지원금이 24달러에서 19달러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난민들의 생활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레바논 내 난민 중 22%인 약 230,000명이 장애(후유장애, 부상, 만성질환 경증 및 중증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이는 WHO 통계치인 15.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⁶⁾이다. 우리 재단 사업지역인 자흘레(Zahle) 지역 내 거주 장애인 난민 수는 약 40,00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⁷⁾ 우리 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장애분야 관련 현지여건 조사 결과, 지역 내 장애분야 활동 NGO는 단 1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내 장애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일반인 대비 더욱 취약한 경제 및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애 난민의 경우, 생계유지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레바논 정부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슬람 문화 특성 상 장애인들은 경제 및 사회활동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생존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

리 재단은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시리아 난민 장애인들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보조기기, 의료 및 재활치료, 생필품 및 동계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0명의 장애 난민아동을 대상으로 각 장애증상에 맞춘 물리치료 및 의료지원과 휠체어, 보행보조기기 및 자세교정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증상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 13명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 프로그램(미술, 음악, 체육, 재활치료)을 운영하여 장애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필수 생필품(곡물 등의 식료품, 향신료 등), 필요물품(전화카드) 및 동계물품 (난방유, 동계의류)을 지원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랍 사회 특유의 남성 우월적인 문화로 기인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4) 2015.07. UNHCR LEBANON FUNDING STATICS 기준.
5) 2014.04. Hidden Victims of the Syria Crisis Report by Handicap International and HelpAge International 통계 기준.
6) 2011.01. the WHO World Report on Disability 기준.
7) 2014.06. Rapid Needs Assessments by Amel International 통계 기준.



참고 3 레바논 내 거주 장애 정도 분류 관련 통계 by UNHCR 및 Handicap International

현재 레바논 내 거주 시리아 난민아동 약 520,000명 중 400,000명 이상이 취학 연령 아동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2%의 아동 90,000명만이 레바논 내 학교에 등록되었으나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상황에 처해있다.⁸⁾ 레바논 교육 및 고등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가 모든 취학연령대 시리아 난민 아동에게 레바논 공립학교 입학울 표면적으로는 허용하였으나, 교육 관련 제반여건(학교 시설 및 교사 부족) 및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사업 관련 현지여건 자체 조사 결과, 사태 장기화 및 재정 악화로 동 사업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주요 국제 NGO 2곳이 교육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요 국제기구 및 소수의 중동국가 NGO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교육 환경(천막교실) 및 한시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 학습 역량 향상 및 교육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재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리아 난민 아동들의 보편적 교육권 및 아동 보호를 위해 초등 및 유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 및 유아교육 대상자 선발 시 편부모, 장애가정 등의 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총 280명의 아동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리아 교육부 공식학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초등교육프로그램(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급식 및 간식지원을 실시하여 신체적 발달과 학습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동건강권 보장을 위해 A형 간염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휴양지 해변에서 3살 아이란 쿠르디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쿠르디 가족은 내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그리스로 가는 작은 배에 올랐다. 승선인원을 훨씬 초과한 난민 탑승인원 수로 인해 작은 배는 뒤집혔고, 쿠르디뿐 아니라 엄마와 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쿠르디의 죽음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시리아 난민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시적인 관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참혹한 내전을 종결짓기 위해선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떠한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시리아인들의 삶에 다시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보여줄 때이지 않을까? **말할**

시리아 내전
난민 동영상보기



8) 2014.12. UNHCR Education Index for Lebanon 기준.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광화문역 주변

글 홍보팀 정혜영 사진 홍보팀 정혜영, 특별한 지도그리기 서포터즈
활동 특별한 지도그리기 서포터즈 강원규, 유경재, 이다인, 이예은, 박세희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며 지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을 맞아주는 친절한 가게,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문화시설을 찾아 지도에 표시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안심하고 찾아갈 만한 곳들을 미리 알려드린다면 조금이나마 즐거운 외출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성곽 문처럼 웅장한 위용으로 경복궁을 수호하고 있는 광화문은 1395년에 창건되어 '오문(午門), 정문(正門)'이라고 불리다가 세종 7년(1425년)에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광화문(光化門)'이라는 이름을 얻게되었다. '광화문'은 서경의 '광피사표 화급만방(光被四表 化及萬方)'이라는 구절에서 차용한 것인데, '나라의 덕치와 문화를 천하 만방에 미치는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광화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재건되었고, 한국전쟁 때 포탄을 맞아 훼손되었다가 광복 65주년이었던 2010년 8월 15일에 복원공사를 마쳤다. 광화문의 앞쪽에는 현대식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고, 뒤쪽에는 경복궁과 전통양식의 건물들이 자리해 있어, 광화문은 마치 시대를 지키는 문처럼 보인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하는 광화문, 그 주변의 풍경들은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을까? 특별한 지도그리기 서포터즈와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다.



특별한 지도그리기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며 그린 지도

광화문으로 가는 길

광화문역에는 총 9개의 출구가 있는데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내리면 1, 8번 출구 방향과 나머지 출구들의 방향으로, 양 갈래로 나뉘진다. 먼저 1, 8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리프트를 통해 지하 2층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를 통해 1, 8번 출구로 나갈 수 있었다. 두 출구는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데, 대로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이동성은 떨어지지만 한적한 곳에 있어 비장애인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1, 8번 출구가 더 편리할 것 같다. 그리고 3번 출구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고, 9번 출구에는 외부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단 9번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올라가야 하는데 혼자서 이동하기에는 경사가 심해 동행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장애인 화장실은 1, 8번 출구 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역은 1, 8번과 9번 출구 2곳에 외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역 내부 이동은 휠체어 리프트뿐이다

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 내려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한 층을 올라오면 화장실이 있고 부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직접 번거로워 보니 번거로움이 조금 작았다. 9번 출구 해치마당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는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부 공간이 있고 비데와 등받이 쿠션, 도움벨도 설치되어 있어 시설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다만,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아쉬웠던 점은 외부 엘리베이터는 존재하지만 내부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점이었다.

서울의 랜드마크

광화문역 주변은 TV 프로그램에서 오프닝 화면으로 자주 사용될 만큼 인상적인 공간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시민 소통 활동의 장으로 열려있는 광화문 광장이다. 광화문역 9번 출구와 이어져있는 이곳은 대로변 사이에 섬처럼 위치해있는데, 서울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다. 또한 세종대왕 동상 뒤편은 전시관과 연결되어 있어 세종 이야기, 충무공 이야기 역사관도 볼 수 있으며, 역사관은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광장에는 분수가 있어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줄기 사이로 신나게 뛰어다니고, 광장의 중심에서는 매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페스티벌이 열려 항상 시민들로 붐빈다. 무엇보다 광화문광장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횡단 보도를 건너 광화문의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

광화문역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꼽으라면 바로 교보생명의 '광화문글판'일 것이다. 2015년 교보생명은 시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광화문글판 글귀' 투표를 진행했는데, 1위에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글귀가 선정되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빠르게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광화문글판을

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화문 글판





페스티벌이 열리는 광화문광장과 너머로 보이는 세종문화회관 풍경

보고 느리게 생각했던 기억이 서울시민이라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교보생명의 지하 1층에는 교보문고가 있는데, 1층 정문을 통해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층마다 장애인화장실이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만큼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잘 되어있었다. 휠체어 경사로가 모든 출구 앞에 있었고 장애인 화장실도 건물마다 있었으며, 부대시설로 광화문 아띠 푸드코트가 있었는데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좌, 우측, 세종로 주차장 입구,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 방향의 예술의 정원 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해피콜'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안내원이 찾아와 일대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주차료를 80%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사방으로 뻗어가기

광화문역 5번 출구 근처에는 청계천이 있는데(1, 8번 출구 엘리베이터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추천, 가장 가까운 곳은 3번 출구 휠체어 리프트) 출구에서 나와 10분 정도 평평한 도로를 걸으면 청계광장을 만난다. 휠체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청계광장의 경사로 입구와 삼일교 근처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청계천으로 내려갈 수 있다.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려면 위쪽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주변에 대형 건물이 많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청계광장 경사로와 삼일교 옆 엘리베이터는 청계천을 경계로 서로 반대편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오고 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또한 광화문역 5번 출구에는 일민미술관이 있는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세워진 이곳은 동아일보 사옥으로 세워졌다가 현재는 미술관과 신문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입구가 평평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3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 문화시설로 추천할만하다. 또한 장애인 50%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근처 동아미디어센터에 주차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광화문역 4번 출구 근처에는 사적 제171호로 지정된 '고종 즉위 40년 청경기념비'가 있어 조선 말기의 목조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다. 비석을 둘러싸고 있는 '기념비전'은 궁에서 직접 관장하여 공사를 진행한 마지막 건축물로서 규모는 작지만 궁궐 목수의 솜씨가 발휘된 작품이다. 그 밖에 광화문역 2번 출구 근처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개항기부터 광복, 정부수립, 한국전쟁, 88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 3층, 5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며 뒤편 주차장에는 2대의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이 있다.



광화문역 사거리에 있는 일민미술관과 광화문우체국

총 평

광화문역은 정부 주요 기관들과 언론사, 대표적인 관광지가 밀집된 지역인 만큼 광화문역의 외관과 주변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근 가게들은 대형 카페와 식당일지라도 턱과 계단이 있어 진입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광화문역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 리프트만 있을 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의 빌딩 안에는 장애인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지만, 지하철역에서 빌딩까지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청계천도 길은 평평하지만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을 찾기는 어려운 점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활동을 했던 장소 중에 가장 기분만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많아 단연 추천하고 싶다.

접근성 : ★★★★★

지하철역 안 이동은 휠체어 리프트 뿐이라 불편하지만 1, 8번

과 9번 출구 2곳에 외부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변 도로가 넓고 평평해 이동이 편리하다. 음식점과 카페에는 입구가 계단인 곳이 많았지만 경사로가 있거나 턱이 없는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많아 추천할 수 있다.

편의성 : ★★★★★

대표적인 관광지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만하다. 하지만 청계천 이동시 직접 휠체어로 다녀보면 엘리베이터를 찾기 힘들고(한 방향에만 있다), 장애인 화장실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재 미 : ★★★★★

광화문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교보문고의 광화문출판, 청계천 등 외관만 보아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인양**





한부모 가정의 장애아로 산다는 것

글, 사진 지원사업팀 박혜은

알콜 중독 남편과 뇌병변 장애 아들

한창 예쁘게 자라나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할 나이에 준모(가명, 9세)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과 발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변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줬던 첫째와 둘째를 보면서 그저 똑같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내 자식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래서 더 참담하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 때부터 준모의 병원 방문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소아과에서도 눈에 띄게 작은 몸으로 받은 검사 결과에 엄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뇌병변 장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발생하는 이 병은 선천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엄마의 머릿속에는 준모가 생후 100일이 되었을 때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 아빠가 알콜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아이가 우니까 아이를 밀쳐 아이가 벽에 부딪혔어요.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막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스러워요. 사실 준모는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날 이후로 아이가 아픈 것 같아서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뇌병변 장애를 지닌 준모는 오른쪽 뇌에 손톱만한 공간이 있고, 다른 뇌병변 장애를 지닌 아이들처럼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픈 준모와 위에 두 명의 형까지, 총 세 명의 아이들을 알콜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몫까지 대신 감당하며 엄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 밖의 작은 희망

시간이 지날수록 준모의 다리는 계속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틀어졌고, 다른 아이들은 걷고 뛸 때에 준모에게 세상은 엄마의 등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걸으려 하면 들려 있는 발의 뒤꿈치로 중심을 잡기 어려워 뒤통거리며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준모가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다른 방도를 몰랐던 엄마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육시간에 학우들과 체육을 하다 넘어져 급하게 이동한 병원에서 준모가 인대증진수술(뒤꿈치 인대를 늘려 발이 땅에 닿도록 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다는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엄마는 준모의 걷는 모습을 상상하며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아

하지만 희망은 엄마에게 안 좋은 소식도 함께 했습니다. 수술비 마련을 하고자 자활 근로를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준모를 봐주었던 활동보조 선생님으로부터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준모가 학교 도움반 선생님께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일이 우선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일을 지속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 수술이 12월에 잡혀있어서 그 때 까지는 수술비 때문이라도 버티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11월에 그만 두게 되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도움반 선생님으로부터 방임되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사실에 엄마는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학교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장애아동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현실 속에서 제가 금방 포기하고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 위해서요. 오직 우리 아이 위해서 견뎌낸 시간이에요.”

좀처럼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건은 일을 그만두고 자료를 모으며 장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준모와 엄마를 힘들게 했던 도움반 선생님은 그만 두고 새로운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글, 사진 자원사원팀 김래홍

새로운 시작, 큰 변화

새롭게 시작된 2학년 생활은 준모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엄마의 등이 전부였던 준모는 수술 후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선물 받았고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 희망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았던 재활치료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모의 지적능력과 사회적 능력은 많이 좋아져 친구들과 속에서 웃음을 띠며 어울리고, 친구의 손을 잡고 칠판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적기도 합니다. 특히 식성이 좋아진 준모가 “엄마, 밥! 밥!”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는 참 뿌듯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 1년 동안의 공백기가 참 크게 느껴져요. 그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 욕심인 것 같아서 요즘은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준모에게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세상도 맑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준모가 변화하니 가족들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바로 준모의 둘째형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을 소금벌레 혼자 사는 외톨이라고 말했던 아이, 준모의 그늘에 가려져 홀로 서 있던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외로운 아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경을 써 줄 수 없던 현실이 얼마나 밍고도 죄스러웠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아이가 요새는 부쩍 밝아져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변화와 삶에 말이에요.” 드디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서 그 동안 작은 아이가 감내해야했던 배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작은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준모네 가정을 보며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준모를 통해 온가족이 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준모를 통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도록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인양**

후원 신청 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외환은행 630-009630-877
- 예 금 주 밀알복지재단

■ “기적을 품은 아이들”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월 20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준모와 같은 장애아동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수술, 결연 의료비로 사용됩니다.

희소질환인 미토콘드리아 증후군을 앓고 있던 지유(가명, 5세)를 기억하시나요? 40호에 소개되었던 지유는 곳곳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합병증과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수술 후에도 정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 몸이 강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갑작스레 찾아오는 경련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의 도움으로 영양죽을 일정한 간격으로 공급해 주는 기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덜 힘들게 영양죽을 섭취할 수 있고 덕분에 살도 통통오르고 키도 커졌답니다. 이전에는 영양죽이 기도로 들어가 토해 낼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폐렴의 위기가 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유는 미토콘드리아 증후군을 장하게도 잘 이겨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넘어야 할 산들도 많습니다. 이제까지 뇌에 영향을 미쳐 뇌병변 장애가 왔었지만, 이제는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곳곳의 장기에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장에 이상이 와서, 오줌이

역류하는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한쪽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으나, 나머지 한쪽은 아직도 역류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으로 조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신장의 기능이 부디 호전되어 투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언제 어느 장기가 이상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유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지유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신장 뿐 아니라 심장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지유가 잘 견뎌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지유의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지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오늘 하루도 지유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일 아침도 지유와 함께 눈 뜨고 지유의 엄마로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유가 이 병을 이겨내어 어머니의 기쁨이 되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양**

특별할 것 없는 자연스러움



글, 사진 홍보팀 권태윤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한경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탁효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또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밀알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탁효윤 후원은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교회가 운영한

카페에서 일상과 같이 장애인들을 보고 만났다고 한다.

“어릴 적 엄마와 다니던 교회에 복지단체가 있었어요. 교회 1층에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장애를 편견 없이 마주할 수 있는 곳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인식이 잡혔던 것 같아요.”

Q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해요. 행색이 조금은 남루해 보이는 장애인이 노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기는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쳐다 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외면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그 장면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마음에 울면서 엄마에게 그 분이 파는 칫솔을 사달라고 떼를 썼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사준 그 칫솔을 들고 집에 들어가서도 엉엉 울었어요.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동정이 아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들을 하대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다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밀알복지재단을 알기 전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관심을 조금씩이나마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Q 후원자님의 나눔은 조금 특별한 것인가요?

A 사실 나눔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나눔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건 기쁜 일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나눔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부의 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밀알복지재단에서도 그 벽을 낮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은 어렵지 않아요.

Q 밀알복지재단에 후원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단체들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후원하는 대상자들도 조금씩 다르듯 말이에요. 저는 밀알복지재단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액수가 아니어도 기부에

동참하고 기부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좋지만 보다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Q 회원모니터링 어울림* 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어울림 활동을 통해 밀알복지재단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벽이 낮아졌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모여 친교도 나누고, 재단이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는 등 우리들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단기 캠프형식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 밀알복지재단의 사업과 후원자 서비스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사업기관 라운딩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Q 끝으로 밀알복지재단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예전에 큰 금액의 돈이 생길 적이 있는데, 일시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정기후원의 경우 처음엔 관심도가 높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의무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깨끗한 경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단체가 되길 바라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게요.

후원을 한다는 것,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밀알**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 기아자동차, 에티오피아에 그린라이트를 쏘아 올린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4월,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방문한 에티오피아.

기아자동차의 CSR경영팀 노계환 차장은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고 이야기 한다.

“에티오피아 관과지역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 언어도 다른 먼 지역으로 이동해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글, 사진 홍보팀 김미란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립'을 꿈꾼다. 차량, 시설물 지원 등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5개년동안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마음이 담긴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기아자동차의 목표가 담긴 시작이었다.

양성을 위한 GLP 중등학교를 건축하고 모빌리티 프로그램 (스쿨버스)을 통하여 원거리의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노계환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공헌을 형식적으로 해오던 저희 회사가 2011년 사회공헌 체계를 수립하고 글로벌 대표사업인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내부 보고를 올릴 때부터 회사 안팎의 많은 분들이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글로벌 임직원 봉사단을 출범하고 처음 저희 사업지역에 왔을 때였습니다.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자원하여 전국에서 모인 20명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계환 기아차 사회공헌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에 꽃혀서 항상 GLP(Green Light Project)만 생각하는 기아자동차 CSR경영팀 노계환 차장입니다.

밀알복지재단과 펼칠 그린라이트는 무엇인가요?

노계환 에티오피아 남부 관과지역의 미래 지역리더



공헌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사업을 하고, 기아차의 이러한 모습이 지켜보는 분들의 마음에도 진심으로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5년 전 기업부도라는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의 도움으로 재기한 회사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기업의 모습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나눔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목표나 비전이 있으신가요?

노계환 기아자동차는 무엇보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회사입니다. 내적으로는 회사 임직원 모두가 나눔의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기를 바라며 밖으로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가진 회사가 사회공헌을 통하여 더욱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90년도에 기아자동차는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국민기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던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언젠가는 '국민기업 기아자동차'라는 호칭으로 다시 불리게 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양**

의 임직원 봉사단원들과 함께 처음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일간의 기억은 저에게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생활 중 얻은 행복하다는 느낌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면서 정한 개인적인 모토가 있나요?

노계환 기아자동차가 사회에서 받은 사랑만큼 사회

기아자동차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Green Light Project)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는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기아자동차 글로벌 사회공헌 대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라이트 스쿨과 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완전한 자립을 돕고, 시행 지역도 전 세계 저개발 국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동등한 기회와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립을 응원한다!



GLP 스쿨
Green Light School

"학교 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지역 내 학교 건립을 통한 중등학교 진학을 향상



GLP 센터
Green Light Center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 지원"
집중 클리닉을 통한 기본적인 의료 / 보건 서비스 제공



모빌리티 프로그램
Mobility Program

"이동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
이동클리닉, 이동도서관, 스쿨버스, 마을버스 제공



2015 해외빈곤아동 생일 캠페인

결과보고

생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해외사업장 아동들에게 태어났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도록 해외빈곤아동 생일 캠페인 '태어나줘서 고마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0명의 회원님께서 2,440,000원의 생일파티 후원금을 보내주셨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생일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생일을 기념해 예쁜 모자를 쓴 아이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에 꽃힌 촛불을 불며 서로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맛있는 간식을 먹고, 예쁜 생일 엽서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생일파티로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잊어버린 여러 명의 아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실례를 하는 귀여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사업장 담당자는 생일파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님께서 선물해주신 생일파티는 단순히 즐겁기만 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신 회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까지 모인 후원금으로 하반기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한 생일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 해외빈곤아동 생일 캠페인 '태어나줘서 고마워!'는 2015년 12월 15일(화)까지 진행됩니다.
※ 해외아동의 특별한 생일파티를 위해 후원을 원하신다면 회원전화번호(1600-0966)으로 연락주세요! **인양**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밀알그린보호작업장 방문기

장애인이 일하는 사회가 특별함 아닌 당연함 되기를

글, 사진 홍보팀 오솔길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닐 것이다. 비장애인에게도 그러하듯, 장애인에게도 직업은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그리고 자아실현 등의 중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오늘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을 다녀왔다.

보호작업장¹⁾의 하루

22명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은, 일반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보호고용²⁾을 제공하는 곳이다.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고용된 이들은 일반 직장과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4시간의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는 미술치료 등으로 구성된 특별활동이나 일상생활훈련, 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을 받으며 업무 역량을 비롯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밀알그린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들은 19세부터 37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을 앞두고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훈련생으로 재직중인 고3 학생부터 10년 이상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 일터를 옮겨온 근로인 등 제각각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천연비누다.



특별활동으로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

1) 보호 작업장이란 일반적인 직업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들이 경쟁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근로의 기회,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시설
2) 보호 고용이란 일반적인 직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정한 근로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고용의 형태



비누 작업 중인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의 근로인들

포장의 화룡점정인 리본끈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는 근로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작업이 없다. 실제 작업장에서 본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들은 아주 숙련된 솜씨로 비누를 제조하고 포장하고 있었다.

비누제조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듯 장애인 직업훈련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비누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누를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근로장애인이 6~7명 정도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훈련기간이 필요했죠.”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근로장애인들 역시 개개인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 직무를 적용하도록 훈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비누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어요. 비누에 따라

천연비누 만드는 장애인들

“처음 봤을 때보다 근로장애인들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비누 20개도 만들어 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하루에 2~300개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납품수량을 맞추기 위해 그저 비누를 만들어 내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비누 제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의 제조 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해진 양에 맞게 계량된 비누원료를 녹인 후 액체상태가 된 원료에 첨가물을 넣는다. 이후 비누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틀에 원료를 붓고 굳어지기를 기다린다. 굳어진 비누는 규격에 맞게 자른 후 건조과정에 들어가는데 비누에 따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건조된 비누는 속포장 후 스티커를 붙이고 선물상자에 넣어 한번 더 포장한다. 이렇듯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 선물



제조부터 포장까지, 작업장의 비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로인의 손으로 완성된다.

다르지만 어떤 비누는 건조하는데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듯 비누제조는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장애인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연계고용제도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받는 중증장애인들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은 총 15명의 근로인과 7명의 훈련생으로 구성된 보호작업장으로, 이 중 15명은 2013년 밀알복지재단과 한화생명이 체결한 연계고용협약³⁾에 따라 일자리를 얻게 된 근로인들이다. 협약에 따라 한화생명은 밀알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인 밀알그린보호작업장과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장애인들이 만든 천연비누를 구입해 고객사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장애인 연계고용이라



건조중인 비누



포장까지 끝난 비누의 모습

불리는 이유는, 실제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장애인사업장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 장애인을 직접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1.6%로 전체 장애인의 취업률인 35.4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모든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고용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인지나 의사소통,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직업생활이 어려운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연계고용은 일반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의 첫걸음

“집을 사고 싶어요.”, “저는 차를 살 거예요.” 하루 4시간의 노동시간을 통해 약 6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들에게는 저마다의 꿈이 있었다. 근로장애인들에게도 노동이란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근로장애인들이 꾸는 행복한 꿈. 그러나 그 꿈이 그들에게만 행복한 꿈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들이 일방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닌 사회,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역시 우리가 꿈꾸는 통합사회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특별함이 아닌 당연함이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본다. **망향**

3) 연계고용이란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가 직업재활시설장애인자립직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공모전 우수상

여기 장애인 있다

글 주분남

밀알복지재단은 4월부터 5월 10일까지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 속의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했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바라봄 기자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가작부터 최우수상까지 총 4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그 중 우수상을 수상한 주분남씨의 '여기 장애인 있다'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젠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병원 대기실에서 뉘 놓고 기다릴 때의 일이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 눈길이 가고 집중하게 되었다.

엄마는 환자복 입은 두 아이를 휠체어에 앉히고 걸리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나보다.
내심 어쩌다 한꺼번에 둘이나 입원하는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돌연 작은아이가 소리친다.
'엄마, 여기 장애인 있어! 여기 장애인 있다고! 이쪽으로 와 봐!'
엄마가 알아들을 때 까지 손가락질을 하며 대어섯 번은 외쳐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몇 적어 하면서 혀를 찬다.

그곳에 있었을 장애인은 누구였을까?
귀가 들리는 장애인이었다면 아무리 어린애의 말이라 해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큰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

한참 동안 혼란한 마음이 뒤섞이다 해답이 나왔다.
휠체어를 탄 오빠가 가려고 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그곳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었다.

외양으로 표시 나는 장애인을 보고 어린아이가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왜 마음이 언짢았을까?
나에게도 장애인 아들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었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나의 아들은 자폐아, 정신지체, 발달장애, 지적장애 그런 유형의 장애인이다.
네 살 때 자폐 판정을 받고 자폐치료실, 조기교실, 초중고, 전공과 까지 일반학교는 다녀보지 못했다.
지금은 나이 스물다섯이고 다행히도 규칙적인 것을 잊지 않는 덕분에 보호작업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다.
아이를 믿지도 못하고, 할 수 있다고 용기도 주지 못하는 과잉보호의 엄마였지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어느 날 문득 아들을 바라보니 저 만큼이라도 커 주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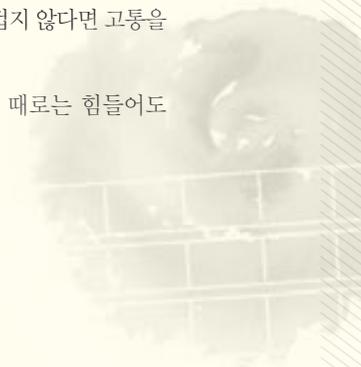
나는 아직도 가끔 아들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고는 꿈이어서 다행이라고 큰 숨을 쉬곤 한다.
지적장애인을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이 어찌면 날마다 모험일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고 있는 것 같다.
아들이 밖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대처하지 못할 것에 걱정이 많지만 오히려 아들로 인해 피해 아닌 피해를 겪어야만 했을 분들도 계실 것이다.
엄마의 걱정에 앞서 사회에서 터러 참아 주고, 터러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성장해 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아들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들을 고쳐주려 해도 가르치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나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엄마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진다.
할 수 있을 때 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면 언젠가는 배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즐겁지 않다면 고통을 견디며 꼭 배워야 한다고 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극복보다는 아들의 장애를 이해하고, 아이의 특성에 내가 맞추어 살면서 때로는 힘들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 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이 장애인데 사는 것이 어떻게 편하다 할 수 있을까?
가슴이 터지는데 어디까지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엄마니까 그래야 해?'
'엄마니까 다 받아주고 평생 책임에 울어야 하는 거야?'
아무데나 대고 마구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다.
울어서 울어서 고쳐질 수 있다면 태산이라도 무너뜨리도록 울어 보겠다.

장애인이라는 것, 더구나 지적장애라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순수해서 예쁠 때도 많은데 내 아들이 그런 장애인이라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장애 자식으로 태어나 제 스스로의 꿈을 가져 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타의에 의한 이끌림으로 살아가자면 그 또한 편한 삶은 아닐 것이다.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엄마의 소망은 어떠한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영**



산하시설 소식



01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가을맞이 대청사랑나눔 바자회

10월 15일(화), 저소득 주민 희망기금 마련을 위한 '가을맞이 대청 사랑나눔 바자회'가 일원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바자회였다.



02 굿월스토어 밀알도봉, 밀알전주, 밀알구리점 연합 가을캠프 가다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부산으로 가을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처음으로 밀알도봉점을 비롯하여 밀알전주점과 밀알구리점이 함께 캠프를 진행하여 더 의미가 깊었다. 또한, 캠프기간 동안 매장도 정상영업이 이루어졌는데, 장애인 직원의 보호자들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자들과 밀알송파점 직원들의 도움으로 마음 놓고 캠프를 다녀올 수 있었다.



03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다문화알리미' 진행

10월 3일(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알리미'를 진행하였다. 개천절과 한글날을 맞이하여 태극기 바람개비와 부채 만들기, 세계전통의상 체험 등 여러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배우자 자조모임에서는 각 가정의 기증한 물품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고,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에서는 수제 피클을 판매하여 지역 사회와 어울리는 기회가 되었다.

산하시설 소식



04 부산지부 부산시청 사랑나눔 바자회 참여

9월 18일(금),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매월 셋째 금요일에 열리는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여하였다.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해 부산 향토기업 테즈락스포츠가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며 재단홍보를 진행하였다.

05 도봉시니어클럽 택배사업단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9월 4일(금), 공군회관에서 '2014년 일자리사업 평가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대회 시장형(취·창업형)부문에서 우리기관 택배사업단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06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어르신 돌봄가족 힐링나들이

8월 29일(토),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자 및 돌봄가족들과 함께 여의도로 힐링나들이를 다녀왔다. 차매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돌봄가족들이 여행을 통해 심을 누리고 이용자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었다.

07 해마을주간보호센터 함께하는 우리여행

9월 15일(화), '함께하는 우리여행'으로 시흥에 있는 포도밭을 방문하여 포도 따기 체험을 하였다. 함께 방문한 연꽃 테마파크에서는 다양한 꽃과 나비를 구경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08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015 강남구사회복지페스티벌 참가

9월 5일(토), 제6회 '2015 강남구 사회복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였다. 민·관 사회복지단체의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강남구 사회복지 페스티벌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체험을 비롯하여 인식 향상에 힘썼다.

09 밀알베이커리 삼시세끼 강남편 - 창경궁 나들이 및 중간평가

9월 15일(화), '국민연금 수급자와 함께 하는 삼시세끼' 프로그램으로 창경궁 나들이를 다녀왔다. 후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직원들과 수급자들이 함께해서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었다. 더불어 사업의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진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 밀알학교 수련활동

지난 9월 16일(수)부터 18일(금),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각 2박 3일과 1박 2일 일정으로 고등부와 중등부가 수련 활동을 가졌다.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과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11 목련어린이집 아빠, 숲에서 놀아요!

9월과 10월 총 4회에 걸쳐 '숲에서 놀아요!'라는 주제로 장애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심리운동을 진행하였다. 숲에서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접목해 장애 영유아들이 아빠와 함께 자연물을 탐색하고 이용하고, 해먹타기와 줄 그네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자유로움을 느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2 우리플러스작업장 사회적응훈련 - 서울랜드

9월 15일(화), 서울랜드로 사회적응훈련을 다녀왔다. 이번 사회적응훈련은 이용자들이 자치회에서 안전으로 내 놓았던 장소로 다녀와 의미가 남달랐다. 놀이기구 바이킹을 보고 무서워한 이용자가 있었지만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이용하며 일상을 벗어나 다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3 성남시장장애인복합사업장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 참여
9월 17일(목), 이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유통점 (NC아파트점)과 함께하는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에 우리 사업장 근로인 5명이 선정되어 참여하였다. NC백화점 아파트점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쇼핑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4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 '아동 한자 지도사 과정' 개강
9월 1(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서초구 지원으로 진행되는 늘푸른대학 자격증교실 '아동 한자 지도사 과정'이 개강하였다. 기초한자와 고사성어를 배우고 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한자수업 및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밀알보호작업장 사회적응훈련 '청와대 방문'
9월 9일(수), 사회적응훈련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청와대는 이용자들이 가고 싶어했던 장소로 녹지원을 비롯하여 홍보관, 소정원, 청와대의 핵심인 본관까지 청와대의 곳곳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2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 10월 현장학습 - 가을농촌 체험하기
10월 16일(금), 양평 그린토피아로 가을농촌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가족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허브전환 만들기, 배따기, 고구마 캐기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농촌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23 중립어린이집 부모참여 수업
9월 12일(토), 학부모와 유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신체, 요리, 작업 등 세파트로 나누어 돌아가며 활동을 하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4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강남구 학습동아리축제 참여
지난 10월 16일(금), '제2회 강남구 학습동아리 축제'에 참여해 체험부스를 운영, 오감놀이지도사 과정을 알렸다. 체험부스에서는 전래놀이인 실팽이 놀이 체험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지문트리 손수건 만들기, 후각을 자극해 심리안정을 줄 수 있는 차량용 디퓨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 무용반 수강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16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서울오라토리오 음악회 참석
9월 7일(월), 서울오라토리오의 정기음악회 '한국 체코 수교 25주년 기념 우정과 평화의 음악회'에 초대받아 참석하였다. 굿윌스토어 직원 및 가족 29명이 함께하여 음악분수와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17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외갓집 체험마을 캠프
지난 10월 7일(토)과 8일(일) 이틀 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외갓집 체험마을로 캠프를 다녀왔다. 외부 활동의 기회가 적은 뇌병변 이용자들은 농촌 체험을 통해 가벼운 노동과 놀이를 접했고, 흙과 땅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8 청마을어린이집 '크니크니 가족운동회' 진행
가을을 맞아 가족과 원아들이 시원한 자연을 느끼며 마음껏 뛰고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크니크니 가족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친밀도를 높이고 체력을 단련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25 면일어린이집 남아섬 가을 나들이
10월 15일(목), 유아반 친구들이 남아섬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가을이 되어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자연도 느끼고 토끼, 새, 낙타 등 동물도 만나며 넓은 자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6 안산밀알센터 숲채원 캠프 참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횡성에 있는 숲채원으로 캠프를 다녀왔다. 숲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한 숲 속 오감 체험과 자연물을 이용한 창작 활동, 그린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27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4·19탑 공원 가을맞이 행복 나들이
10월 14일(수), 가을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4·19탑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외부에서 다함께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산책을 하며 충분한 휴식과 심을 얻고 돌아왔다.

19 한우리주간보호시설 현장학습 - 광릉수목원
10월 13일(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광릉수목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숲 해설가를 통해 나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호자와 함께하는 이번 가을여행에서 삼림욕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등 소중한 삶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

2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건설공제조합과 함께하는 추석 선물꾸러미 나눔
지난 9월 8일(화), 재가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추석 맞이 선물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강남 건설공제조합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개 품목 13가지 종류의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 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은 직접 박스포장부터 배달까지 참여하는 등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1 밀알그린보호작업장 운동프로그램 실시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구스포츠평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축구, 농구, 줄넘기,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 도전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가 좋은 축구경기를 할 때는 골을 넣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등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8 도봉실버센터 나의사랑, 나의가족 '한마음 축제' 진행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하여 17일(토) 오후 2시에 제10회 '나의 사랑 나의가족 - 한마음축제'를 진행하였다. 상원중학교의 오케스트라 무대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모범어르신 표창과 도봉실버센터 어르신들의 영상 감상, 2부에서는 가족 웃음치료 행복한 가족 추억 만들기과 추억의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등 지역사회가 다함께 어우러져 흥겹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나누었다.

29 안산밀알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들과 함께 MT
10월 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1박 2일간 근로장애인들과 함께 외갓집체험마을로 MT를 다녀왔다. 고구마 캐기, 송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수확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3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다산유적지로 가을나들이
10월 13일(월),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기념관을 견학하였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정약용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강이 보이는 생태공원을 산책하면서 높고 푸른 하늘과 국화, 갈대 등을 보며 가을을 만끽하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2015 하반기 국내·해외 아동 선물보내기 캠페인

너의 2016년을 응원해!

다가오는 2016년 아이들에게 특별한 새해를 '선물'해 주세요!
2015. 10. 19 ~ 2015. 12. 31



회원님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5년에도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이들은 저마다 꿈을 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로 특별한 새해를 응원해 주세요!



국내·해외 아동에게 새해 선물 보내는 방법

- 신청 기간** | 2015년 10월 19일(월) ~ 12월 31일(목)
- 후원 금액** | 20,000원 이상 자유롭게 접수

국가별 아동의 새해 선물

※ 현지사정으로 시에라리온, 미얀마 사업장은 선물 전달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	우간다(캄팔라 사업장)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국내아동
물병	색종이, 가위	도시락 세트	담요	
우간다(굴루 사업장)	에티오피아	네팔	태국	결연아동 또는 지은이에게 필요한 물품
담요	티셔츠	스웨터	티셔츠	

신청방법

- 밀알복지재단 계좌로 후원하기** | 후원계좌: 하나은행 810-213110-0150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정확한 후원금 처리를 위해 입금자명을 '후원자명 + 핸드폰 뒷자리'로 작성해주시거나 회원전화번호 (1600-0966)로 연락 바랍니다.
- 회원전화번호(1600-0966)로 전화하기** | 기존 후원금과 함께 1회 선물금 후원
-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선물보내기 캠페인 배너 클릭 후, 선물금 결제

지원대상

대상	결연회원	비결연회원
국내아동	회원님의 결연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이 전달됩니다.	뇌전증과 웨스트증후군(신경계통 희소질환)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은이에게 전달됩니다.
해외아동	선물로 인한 아이들 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연아동 뿐만 아니라 결연아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이 전달됩니다.	

2015 상반기 선물보내기 캠페인 - 'THE PRESENT' 결과보고

- 캠페인 기간 | 2015. 4. 1. (수) ~ 2015. 5. 30. (토)
- 참여 국가 | 네팔, 우간다(캄팔라·굴루 사업장)
- 총 모금액 | 2,800,000원

지원 국가	네팔	우간다(캄팔라 사업장)	우간다(굴루 사업장)
지원 선물	가족신발	출납기	위생용품

※ 더 자세한 내용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 나의후원공간 - 회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밀알**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해주세요!

2015년 한 해도 함께 해주신 회원님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놓치지 마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매년 1월 제공해드린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서비스가 2016년 1월부터 종료**됩니다.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해 더 많은 소외된 이웃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홈페이지 www.miral.org → 나의후원내역 → 기본정보 조회 / 변경 → 기부금영수증
 - 회원전화번호 1600-0966

온라인 발급방법

2016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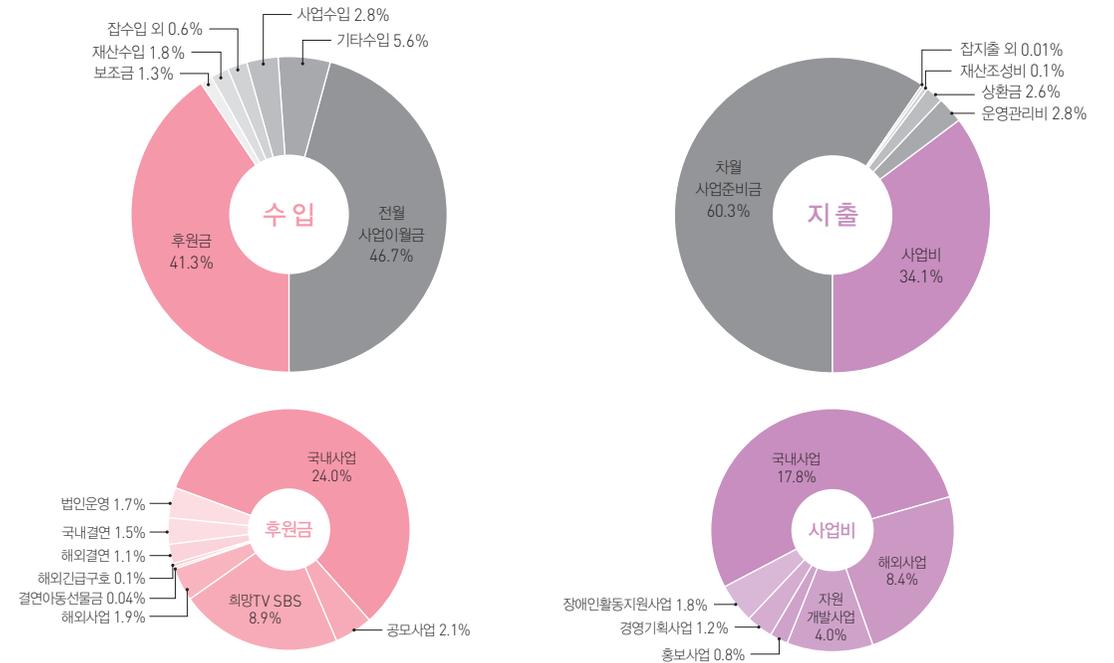
방법 2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www.miral.org → 나의후원공간 → 나의후원내역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회원전화번호 1600-0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로로 납부하시는 경우 2015년 12월 28일까지 납부된 후원금에 한하여 올해 후원금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인양**

2015년 9월~10월 결산보고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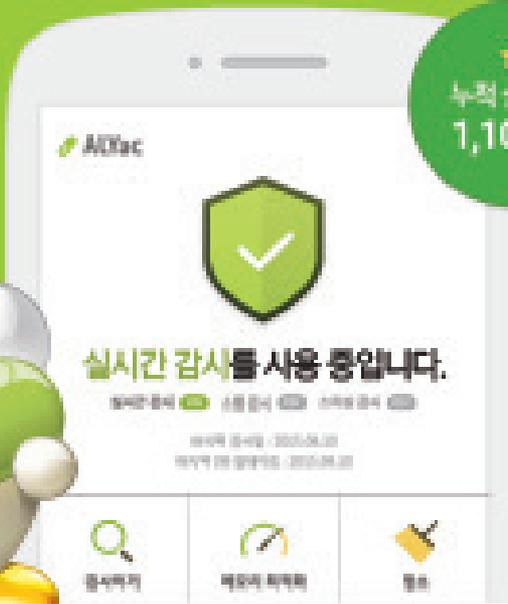
구분	내 용	금 액
보 조 금	위탁시설운영지원보조금, 기타보조금	81,033
후 원 금	국내 [장애아동,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후원, 해외 [보건의료, 지역개발, 아동교육] 후원, 긴급구호후원, 공모사업후원, 법인운영후원 수입 등	2,580,969
재 산 수 입	기본재산 이자수입	110,260
사 업 수 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수입 등	176,971
기 타 수 입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348,435
잡 수 입 외	예금이자 등 잡수입	35,047
전월사업이월금	사업이월금	2,923,272
합 계		6,255,986

구분	내 용	금 액
운 영 관 리 비	인건비 등 재단운영관리비	261,012
국 내 사 업	국내아동결연 및 보육, 장애인의료 및 교육지원, 저소득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인식개선사업	1,677,297
해 외 사 업	해외아동결연, 해외아동교육, 긴급구호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21개국 지원	792,054
자 원 개 발 사 업	미디어, 온라인, CSR협력, 회원서비스사업	375,759
홍 보 사 업	언론, 출판,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관리사업	78,668
경 영 기 획 사 업	교육연구, 조직강화, 기획사업, 전산개발	115,341
활 동 보 조 사 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72,875
재 산 조 성 비	기본재산취득, 임차보증금, 시설장비유지	9,250
상 환 금	부채 상환금*	248,628
잡 지 출 외	집지출, 전월 미지급금, 선금비용	950
차월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	2,524,153
합 계		6,255,986

*상환금은 법인운영으로 지정한 후원금으로만 사용됩니다.

ALYac

스마트폰 보안 UP! 알약 안드로이드



누적 설치 수
1,100만



구글 플레이에서 '알약'을 설치하세요!

[국내 사업장]

[법인 사무처]
경기지부 031-235-4667
경남지부 1600-0966
부산지부 051-853-4665
전남지부 1600-0966
전북지부 1600-0966

[장애인복지사업]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월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굿월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031-524-9891
밀알그린노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룹홍동행의집 055-753-1456
밀알그룹나눔의집 02-3401-1084
밀알그룹섬김의집 02-449-3478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02-3411-7942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밀알학교 02-3412-1133
성남시장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031-418-9863
안산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옥수그룹홈 031-705-3398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울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노인복지사업]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지역복지사업]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아동보육사업]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여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어린이집 02-459-6335

[문화, 일자리사업]

밀알아트센터 02-3411-6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기니비사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레바논 +961-7049-1615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미얀마 +959-25-091-2234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베트남 +84-903-391-568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우간다 +256-776-771-324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이스라엘 +972-52-547-1422
캄보디아 +855-12-783-193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케냐 +254-732-625-987
타자니아 +255-754-344-495
태국 +66-86-191-6122
필리핀 +63-922-739-7017

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외환은행 630-009630-877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전용번호
1600-0966**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